

## 쉐퍼의 어깨를 빌리자

글 성인경 한국라브리공동체 대표

예수를 따른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유차해 보이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한번은 제자들끼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다툰 일이 있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끼어들 정도였으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알았다면 간담이 서늘해서라도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감히 말조차 끄집어 낼 수 없었을 텐데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을 기대했으니 꿈꿀 수도 없었을 것이다. 초막 셋을 짓고 변화산에 살자고 제안 했던 베드로의 경우도 웃음을 자아내기는 마찬가지다.

## 영적위기

프란시스 쉐퍼(Francis August Schaeffer IV, 1912-1984)는 사랑과 지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전도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부인 이디스(Edith) 여사와 함께 라브리 공동체(L'Abri Fellowship)를 설립하고 수많은 구도자들을 만나 자신의 황금같은 시간을 다 내어준 사람이다. 그는 그들과 대화하며 깨달은 진리를 23권의 크고 작은 책에 담았는데, 그것들은 각종 이데올로기와 타락한 문화 속에서 고뇌하는 지성인들을 위해 남겨놓은 실천적인 기독교 세계관 안내서들이다.

그는 어릴 때에는 세상에 실망하고 진리를 찾아 방황했으나 나이가 들면서는 진리를 보다 조직적으로 탐구하고 정립하는데 젊음을 바쳤으며, 장년 때에는 그가 찾고 연구한 진리대로 살고 전하려고 자신의 가정과 삶 전체를 쏟아 부었다. 동시대 최고 신학자였던 패커(James I. Packer)는 쉐퍼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한 사람의 작은 장로교 목사로서 그가 주목했던 것들 이상으로 깨달았고, 우리 모두가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예민하게 고민했던,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위대한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고민하고 깨달았던 것이 단지 케케묵은 문제나 서양적인 해답에 불과한 것이라면 굳이 그의 어깨를 빌릴 필요가 없다. 비록 용어가 다르고 서양적 접근이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의 고민과 깨달음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국제 사회가 씨름하고 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었다면 그의 어깨를 빌려서라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쉐퍼가 고민하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였을까? 이 글에서는 그의 영적 위기 후에 지은 시한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1951년, 그가 마흔 살을 바로 앞둔 겨울에 영적인 위기를 맞았다. 당시는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1948년 설립) 등 새로운 국제기독교기구를 두고 연합운동과 분리주의 사이에서 본질을 벗어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사랑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신앙과 교리를 재고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그 때 쉐퍼는 아내 이디스 여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것은 그가 기독교인이 된 지 무려 20년, 목사가 된 지도 13년, 선교사로 일한지도 벌써 3년이 된 때였다. 그는 겨울 내내 알프스산 계곡을 걸으며 생각하기도 하고, 동물들의 먹이를 저장한 건초더미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알프스에 봄이 왔을 때, 그는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쉐퍼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그 때의 영적 위기가 없었더라면 라브리 사역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고백했다. 그 이후로 성경적 기독교가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며, 기독교인들의 마크(mark)는 십자가의 능력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을 자신의 말과 삶을 통해 실천하고 증명하려고 일생을 바쳤다. 그에게 찾아온 영적 위기는 자신에게도 유

**그가 고민하고 깨달았던 것이 단지 케케묵은 문제나 서양적인 해답에 불과한 것이라면 굳이 그의 어깨를 빌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의 고민과 깨달음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국제 사회가 씨름하고 있는 유사한 문제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었다면 그의 어깨를 빌려서라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비슷한 영적 위기를 맞이하여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돕는데도 좋은 길잡이가 되었다.

부인 이디스 여사는 당시를 회고하기를, “그 때 이후로 프랜(프란시스의 애칭)은 스스로 튼튼한 기초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앞으로 (사람들의 정직한 질문에 정직 하게) 대답할 문제에 대한 신선한 준비를 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신선한 준비’란 웨퍼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후에 방언이나 신유, 예언의 은사 등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철학적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웨퍼는 그 때 성령 충만의 결과로 몇 편의 시를 썼다고 하는데, 다음에 소개하고자 하는 ‘주여, 미끄러운 곳에서 우리의 발을 붙드소서’라는 시는 그 중에 하나이다. 그는 이 짧은 시에서 세상은 알프스산의 빙판길처럼 매우 미끄럽고 그 밑에는 천 길 낭떠러지가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가서 고독할 때나 갈채를 보내며 모여들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고, 잘 미끄러지기로 소문난 자신의 연약함을 해결할 길은 오직 주님이 강한 손으로 두 발을 붙잡아주시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고백한다. 영어도 시어(詩語)도 잘 모르는 필자이지만 이 시를 옮겨 보았다.

### 주여, 미끄러운 곳에서 우리의 발을 붙드소서

Lord, keep our feet in the slippery place	주여, 미끄러운 곳에서 우리의 발을 붙드소서.
When friends are gone away.	친구들이 떠나 가버릴 때.
When we stand alone in the dark and cold,	우리가 어둡고 추운 곳에 외로이 서 있거나,
And all men answer, ‘nay.’	모든 이들이 ‘아니야’라고 대답할 때.
Lord, keep our feet in the slippery place	주여, 미끄러운 곳에서 우리의 발을 붙드소서.
When friends all crowd around.	친구들이 모여들어 에워쌀 때.
When men as echoes with smiling face,	사람들이 미소 띤 얼굴로 요란한 갈채를 보내지만,
Give but an echo’s sound.	그것이 텅 빈 메아리에 불과할 때.

쉐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개인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몹시 낙심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기가 걸어온 길과 교계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도, 전통, 형식, 운동, 조직, 사람 등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영성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 영적 출발점

그러면 쉐퍼의 인생에 대 전환점이 된 영성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쉐퍼는 영적 위기를 그치며 자신이 지금까지 딛고 서 있던 영성의 '출발점(starting point)'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때까지만 해도 그의 영성의 출발점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특정한 제도, 전통, 형식, 운동, 조직, 사람에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 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영성의) 기차에 타고 있었다. 내가 탔던 잘못된 영성의 기차는 1930년에 유행한 분리운동이었고, 나만이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영적 교만이였다.”고 고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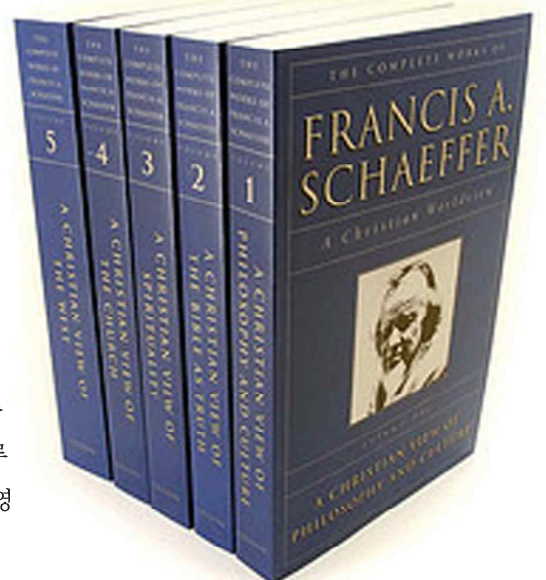
쉐퍼가 말한 '잘못된 영성의 기차'는 '분리운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세상 문화를 배격하는 근본주의적인 신앙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치적, 신학적, 감정적으로 자신이 범한 과오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는 존경하던 신학자 그레샴 매첸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1936년에 미국 북장로 교회 총회에서 성직이 박탈당하는 것을 목도했으며, 매첸이 가르치던 웨스트민스트신학교에 들어갔으나 거기에서 교수들 간의 신학적 갈등을 보고는 맥킨타이어 교수를 따라 웨이스신학교로 학교를 옮기기도 했고, 졸업한 후에는 성경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필라델피아와 세인트루이스에서 10년간 목회에 전념하기도 했다.

그 후 1937년에 교단 파송을 받아 제2차세계대전 후의 유럽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스위스에서 선교사로 일 하던 중에, 세계교회협의회(WCC) 출범 초기에 가담했던 지도자들 간에 감정적인 분열이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랑의 결핍'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기도 하였고, 정통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칼 바르트(Karl Barth)를 만나서 대 신학자의 면모를 보기도 하였지만 신학적 차이를 확인하고 실망하기도 했다.

그는 유럽에서 많은 교회와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는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개인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몹시 낙심했다. 이처럼 자기가 걸어온 길과 교계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쉐퍼는 제도, 전통, 형식, 운동, 조직, 사람 등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영성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둘째, 쉐퍼가 깨달은 진정한 영성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초자연성(supernaturality)',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代贖的) 은혜를 '순간순간 믿는 것(moment by moment trust)'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적 사역을 실존적으로 매 순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영



**“만약 라브리에 영적 실체가 상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이거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령님이 더 이상 라브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증후가 발견되면 차라리 문을 닫아라.”**

성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가지고 과일을 맺을 수 있다(요한복음 15:4)고 한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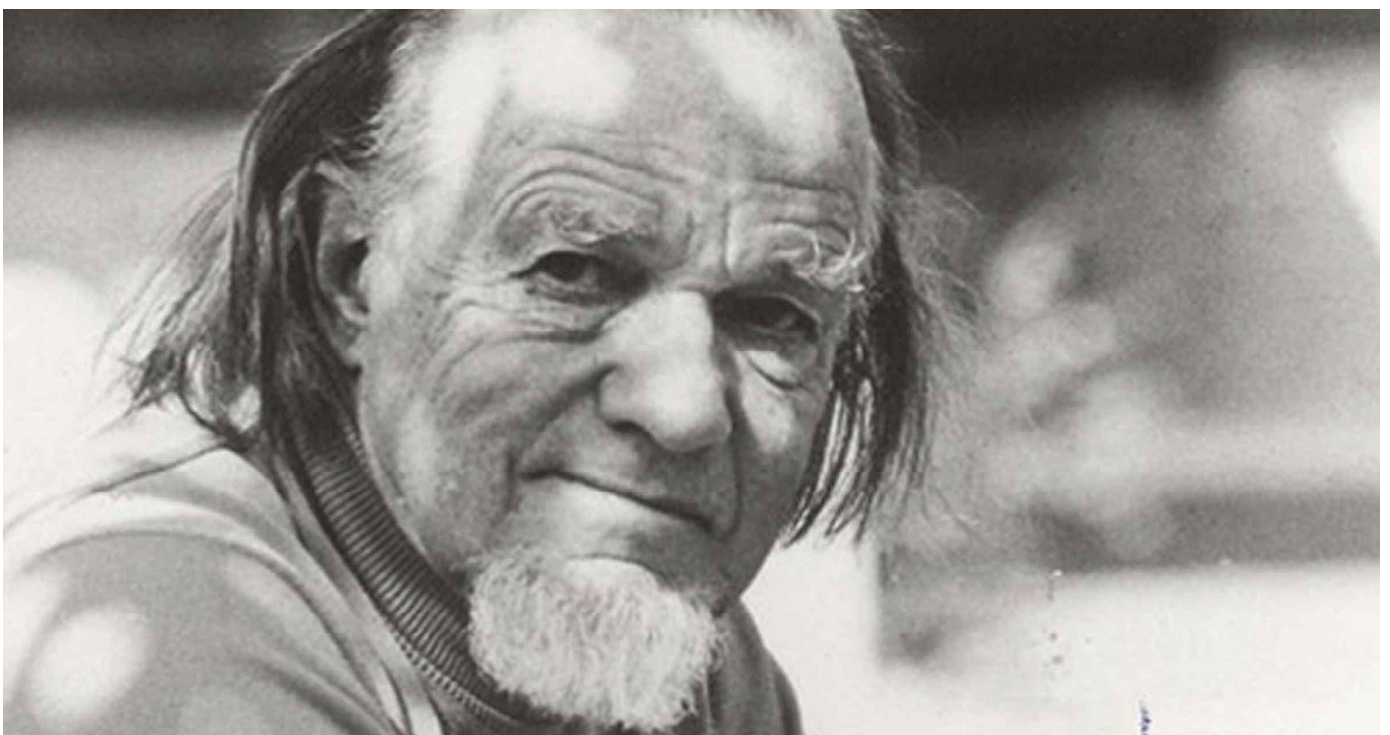
콜린 두루에즈(Colin Duriez)는 이때에 쉼퍼가 깨달은 영성을 '실존적 유형의 복음주의'라고 규정하며, 쉼퍼가 그것을 부부관계의 예를 들어 자기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자랑삼아 전하고 있다. “순간순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내가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매일 밤 다른 여자와 함께 자러 가는 것과 같은 것과 같은 것이다.”

쉼퍼가 이때 깨달은 초자연적이고 실존적인 영적 삶의 중요성은 그가 나중에 라브리 공동체(L'Abri Fellowship)의 운영 원칙을 세우는데도 다음과 같이 적용했다. “만약 라브리에 영적 실체가 상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이거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령님이 더 이상 라브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증후가 발견되면 차라리 문을 닫아라.”

이 때 쉼퍼가 깨달은 영성의 범위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이었다. 그는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바른 영성이라고 보았다. “나는 바른 영성의 강조점을 삶의 전 영역, 즉 예술, 문학에서부터 법과 정부의 영역까지를 예수님의 주재권(Lordship)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한 마디로 그는 '죄 짓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영적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즉 공부하든지 데이트하든지 컴퓨터 앞에 앉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든지 예수 안에서 죄짓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믿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도 치료하셨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



셨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기도 하셨고,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을 좋아하셨고, 잔칫집 손님들이 마시고 즐기도록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했다(마태복음 4:23; 누가복음 24:28-32; 요한복음 2:1-12). 부활하신 후에는 나무를 모아 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워 드시기도 하셨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물질계와 정신계를 분리하거나 세속적인 삶과 거룩한 삶을 분리하시거나 삶의 어떤 영역도 그의 다스림과 회복 사역에서 제외하신 흔적이 없다.



이런 영적 위기 후에, 쉼퍼 가족은 1953년부터 1954년에는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냈는데 그 때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영적각성을 위한 부흥집회를 많이 인도했다. 쉼퍼 여사가 기록한 노트에 의하면, 515일 동안에 무려 346 차례나 집회를 인도했다고 한다. 당시에 그의 메시지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 주류였다고 한다.

안식년이 끝나갈 무렵, 그의 사역과 노고를 인정한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있는 하이랜드대학 (Highland College)에서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도 했으며, 그 후 다시 스위스로 돌아와 제2기 선교 사역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위스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아들 프랭키가 소아마비에 걸린 것을 알았다. 새로운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 중보기도요청

지난 3월,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승태 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장녀 김선영 양이 재생불량성빈혈로 갑작스럽게 발병하여 일산 암센터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현재 동생 김영준 군의 골수를 이식받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을 위한 치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자녀의 빠른 회복과 완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